

금융위가 FIU 가상자산검사와 이관 등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- 뉴스웨이 7월 1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뉴스웨이는 7.18일 「금융위, ‘FIU 가상자산검사와’ 직접 관리한다… 본청으로 이관추진」 제하의 기사에서, “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국(가칭)을 신설한다. (중략) 현재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 산하의 가상자산검사와를 뼈대로 가상자산국을 꾸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이 부서를 본청으로 옮겨온 뒤 업무별 담당자를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. (이하 생략)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- 금융위가 FIU 가상자산검사와 이관 등을 추진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행정인사과	책임자	과 장	이진수 (02-2100-2750)
		담당자	서기관	서 준 (02-2100-2751)